

국산품은 모두 저질인가?

1956년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학한 나는 대학졸업 후 잠시 취직을 하였다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마치고 1967년 박사과정에 입학
서울대 공과대학 신제박사 1호를 기록했다. 그 후 서울대 화공과에서는
1백38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그들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하며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을 평가함에 있어 그 잣대를 SCI등재 논문수에만 치우치는 것 같이
안타깝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李 華 榮

(서울대 응용화학부 교수)

도 많았다. 지금도 잊지 못할 일들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전학년의 성적표를 철조망이 쳐진 게시판 속에다 전시한 것이다. 기숙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니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잘 놀러 다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성적표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비례하지 않는 예를 많이 보았다. 오히려 놀면서도 성적을 잘 받는 선배들이 부러웠다.

공대 신제박사 1호 기록

나는 195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이 해에는 예년과 달리 학과 구별없이 처음으로 공과대학 단위로 모집되었다. 입학해서 얼마 후에는 유명한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 당시 기숙사란 정식 기숙사가 아니고 섬유공학과와 실험실을 임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큰 방에는 20여명, 작은 방에는 6~7명이 함께 지냈다. 침대는 각자가 군대의 목침대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한 방에 많은 사생이 있다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각자의 습관이 달라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방마다 특별한 전통이 있어서 그 방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에는 때아닌 봉변을 당하는 경우

내가 재학하던 무렵에는 서울대학교와 Minnesota대학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과대학 교수의 상당수가 Minnesota대학에 재훈련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많은 시간강사로 수업을 메꿔야 했기 때문에 교육이 좀 부실한 때였다. Minnesota대학에서 갓 돌아온 어느 노교수는 어찌된 영문인지 강의는 전혀 하지 않고 모두 자습을 시켰으며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개별 지도만 해 주었다. 물론 집에서 예습해 와서 의문점을 물어봄으로써 효과적인 수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에 적응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분방정식 강의 한번 들어

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몇개의 과목은 교과서로서 원서를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교과서 없이 교수님들의 노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과 비교하여 너무 지식이 모자란 상태로 대학문을 나섰다. 그 무렵에는 졸업을 하더라도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아 군소기업 규모의 공장이나 산업은행 같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후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으로 유학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내 동기생 42명중에서 50%인 21명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만 보아도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하였지만 그 곳에서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을 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마침 이재성교수님의 배려로 이 교수님이 관련하는 작은 연구소에서 part-time으로 일하면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고압장치의 설계 및 운전을 터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교수님으로부터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 등을 배운 것은 내 인생에 커다란 득이 되었다.

석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 나갈 생각도 하였으나 내가 처한 입장이 그렇게 하기에는 처신이 어려웠고 한국에서 신제(新制) 박사과정에 들어가 박사과정을 토착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기로 결심하였다. 1967년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내가 공과대학 신제박사 1호가 될 것을 꿈꾸었다. 1968년에는 유급조교 발령을 받았고 그해 11월에는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으니 나의 박사과정은 part-time이 되고 말았지만 몇 개 과목은

석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수강을 하면서 학점을 받아 197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명실상부한 공과대학의 신제 박사 1호라고 자부하고 싶다.

나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학위하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고 연구소 연구원이 된다면 그 나라의 발전은 영원히 외국에 종속되고 만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 나라에서 대학 교수와 연구원을 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한 어느 인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선진국이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와 연구원을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나라'라는 선진국에 대한 정의는 맞는다고 생각한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가 이루어지면 그 아이디어와 장치 등이 그대로 후배에게 전수되어 국내의 기술로서 정착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외국과의 교류없이 국내에서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일부는 학위과정부터 외국에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학위한 사람은 post-doctorate 과정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과학과 접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어찌되었던 내가 신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몇몇의 후배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덕분에 외국에서 돌아온 신진 교수들이 그나마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몇몇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는 박사가 1998년까지 1백38명 배출되었으며 그들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며 대학과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의 활성화, 특히 박사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주)유공으로부터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및 장학금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점이다. 1984년부터 시작하여 10년간 '유공'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연구비와 장학금을 투자함으로써 공과대학 전체의 대학원 활성화 및 산학협동 체제의 확립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대학원의 활성화가 대학의 발전은 물론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이해해준 김항덕사장과 박종욱부사장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싶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 공과대학에는 기초전력연구소, 정밀기계연구소, 자동화시스템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 화학공학과에도 결국 이것이 모체가 되어 현재 화학신공정연구소가 SK의 증여로 건설되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국내 학술지 논문도 평가해야

국내에서의 과학의 발전과 토착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학술지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논문이 많이 게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정열을 쏟아 학회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다.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을 평가함에 있어 그 잣대를 SCI 등재 논문수에만 너무 치우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global시대에 외국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여 세계인과 학술교류를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국내 학술지를 발전시켜 global화하는 것 또한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학술지가 global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좋은 논문이 투고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SCI 학술지와 같은 대우를 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전혀 점수화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한림원에서는 국내 학술지는 물론 국내학술지 중에서 SCI 등재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혀 평가받지 못한다면 국내의 모든 학회들은 휴지조각들을 발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외국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 외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수 보다 외국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했다하여 국내 한림원에 그들을 모두 영입한다고 하면 국내 학술발전에 기여해 오던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한림원은 어느 나라에 속한 한림원이란 말인가? 외국대학에 재직하는 학자는 그 나라에서 학술원 회원이 되었을 경우 국내에서 명예회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산품은 모두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내 학술기관의 위에 앉아 그릇된 지휘봉을 휘두른다면 국내의 학문은 언제 global화 되겠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㉔